멈췄던 전주역세권 시계 다시 움직인다

정동영 국회의원 · 윤동욱 부시장 · 송영환 LH 전북본부장 등 참석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전주시는 8일 덕진구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과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송영환 LH 전북본부장, 장재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와 정치권,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수년간 중단됐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8일 덕진구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과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송영환 LH 전북본부장, 장재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전주역세권 인근 약 106만㎡ 부지에 임대주택 공급 등을 담당할 LH와 전주시로부터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채워졌다.

당장 LH는 교통개선 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LH는 2027년도부터 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 절차에 착수해 2034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도 외부 교통개선 대책으로, △초포다리로 확장(1.8km, 2→4차로) △전진로 확장(0.6km, 4→6차로) △동부대로변 진입로 확장(2개소, 총 0.4km, 2→4차로)을 LH 전액 부담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며, △동부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LH의 분담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 및 결과는 정치권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주택공급 정책 변화로 인해 2021년 1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전주시는 동부권의 균형 발전과 생활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재개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 과제로 부각된 외부 교통 개선 대책 협의를 집중해왔다.

시는 직접 LH 본사 및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외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으며, 정동영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으로 LH와의 외부 교통개선 대책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전주역세권 인근 우아동, 호성동 인근 약 106만㎡ 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해 약 7천여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정동영 의원은 "멈춰선 전주역세권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전주역세권 사업은 전주시의 미래 10년, 100년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축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결국 전주 발전과 전주시민의 공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전주시와 국토부, LH가 다시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 분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불편을 겪으신 점이 매우 안타깝다" 며 "앞으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이연상 이사장이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혁신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전주시설공단, 창립 17주년 기념식 열고 비전 공유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창립 17주년을 맞아 '시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혁신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공단은 8일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7주년 기념식을 열어 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연상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공단이 17년이라는 세월을 흔들림 없이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더욱 정직하고 투명한 공기업을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올초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전문가적 시설관리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새 미션으로, '시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혁신적인 공기업'을 새 비전으로 각각 수립해 실천에 매진해 왔다.

/권희성 기자

수도요금 전자고지서 이용 할인 혜택 제공

할인받은 전주시민 4만8609세대 넘어서

전주시가 수도요금 전자고지서 제도를 이용해 할인받은 시민이 4만8,609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문자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월 2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환경보호와 고지서 발생 예산 절감을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서 할인 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를 이용하면 종이 사용량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효과는 물론, 종이 고지서 발행 시 발생하는 인쇄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수돗물 사용량과 사용 기간, 수도요금 등 납부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메일 수도요금 고지서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부터 문자를 통한 고지서 수령은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체 24만8,734세대 중 약 19% 수준인 4만8,609세대가 수도요금 전자고지서 제도를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전체 고지서 수령자 중 30%(7만5000세대)까지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자고지서 제도를 이용하는 세대가 30%까지 늘어나면 한 해 4500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자고지서 희망자는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누리집(jeonju.go.kr/water_m) 또는 전화(063-281-6860)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납부자(은행 자동이체, 신용카드)에 한 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상수도 요금액의 1%, 최대 5000원의 할인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기섭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통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절감하고, 이용자 편의 증대라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자고지서 신청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수족구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최근 성홍열, 수족구병의 발생 증가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 성홍열 환자 수는 지난 24년 상반기 대비 10명에서 30명으로 3배 증가했으며, 전국 환자는 2687명에서 6070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성홍열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인후통으로 시작해 하루 이틀 내에 온몸에 붉은 발진이 퍼지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만 백신이 없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올바른 손씻기 준수 △기침예절 지키기 △수건, 물컵, 식기구 등 개인용품 공유하지 않기 등이 있다.

또한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 등)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 역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는 위생수칙 준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 보건소장은 "성홍열과 수족구병은 영유아 및 소아 발생비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각 가정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시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전주 하계올림픽 공감대 형성 위한 공무원 특별강연

전주시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전주시는 8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청원공감 한마당'에서 시청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망과 중심도시 전주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와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특별강연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IOC 문화 및 올림픽 헤리티지위원회 위원이자 국제 스포츠 외교 전문가인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 윤 원장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기정 옹의 1936년 베를린 마라톤 금메달 100주년을 맞는 2036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국내외 홍보 강화 △IOC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스포츠외교 TF 구성 등의 '골든타임(2025~2027년)' 전략을 제시했다.

/권희성 기자